



상반기 펀드시장

1 상반기, 국내채권·국내혼합·해외주식으로 자금 유입

- 2021년 상반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외주식 직접투자는 계속 이어졌으나, 국내외 주식 간접투자(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지 않음
- 국내채권형은 유동성 증가, 국내혼합형은 공모주펀드의 활성화로 인해 대규모 자금 유입

2. 해외주식과 인덱스주식의 신규 설정 이어짐

- 우리나라의 신규 펀드 수는 작년 상반기 677개, 작년 하반기 780개, 올해 상반기 583개 기록. 이 중에서 80% 정도는 ELF
- ESG, 지속가능 등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펀드 설정이 이어짐
- 은퇴자산 운용의 대세가 된 TDF(라이프사이클)의 신규 펀드 설정도 지속

3. 해외주식 1조펀드는 4개

-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국내액티브주식펀드 중에서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 펀드는 '신영밸류고배당'이 유일
- 국내주식인덱스펀드 1조 펀드는 9개
- 해외주식펀드 중 1조 펀드는 4개이며, 순자산 9천억원을 넘는 펀드도 3개가 있음

1. 상반기, 국내채권·국내혼합·해외주식으로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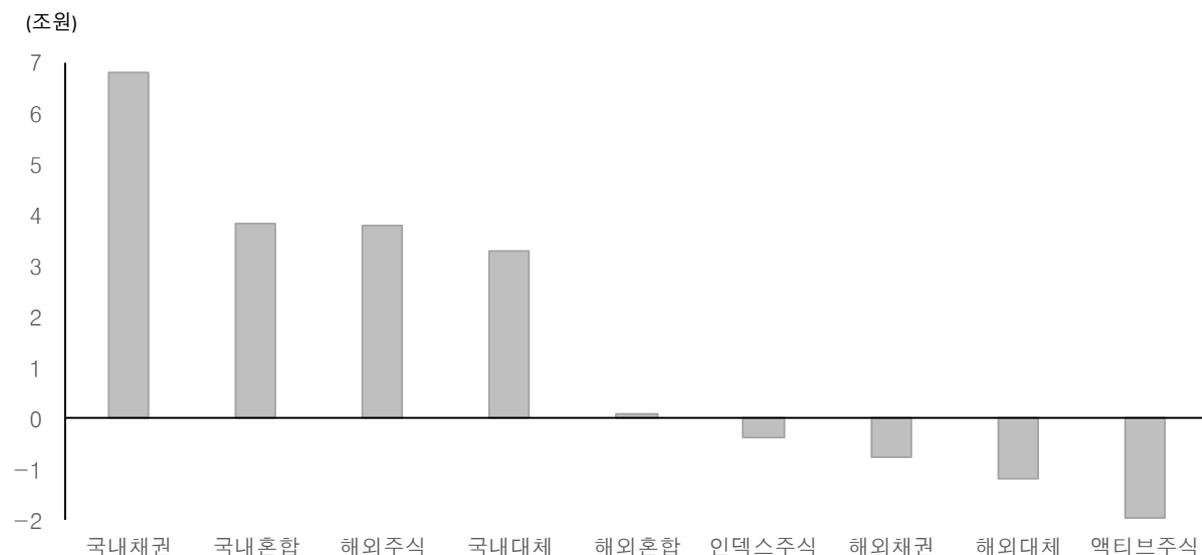
2021년 상반기에는 KOSPI가 최초로 3,300pt를 넘어서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외주식 직접 투자는 계속 이어졌으나, 간접투자(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지 않았다.

상반기 펀드 유형별 설정액 순증감(재투자 제외)을 살펴보면, 국내채권형과 국내혼합형으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국내채권형은 유동성 증가에 힘입은 영향이 컸다. 작년 이어 대형 IPO가 이어지면서, 공모주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진 상황이다. 공모주펀드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국내혼합형은 3.7조원의 설정액이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펀드 투자로 이어져, 해외주식형의 설정액은 3.8조원이 늘어났다. 해외주식은 2차전지, 전기차, IT, 배당 등 다양한 테마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액티브주식형과 인덱스주식형은 이익실현이 늘어나면서, 설정액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 중에서 테마펀드, ESG펀드로는 투자가 이어지면서 신규 설정도 늘어났다.

[차트 1] 2021년 상반기, 펀드 유형별 설정액 순증감(재투자 제외)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주식과 인덱스주식의 신규 설정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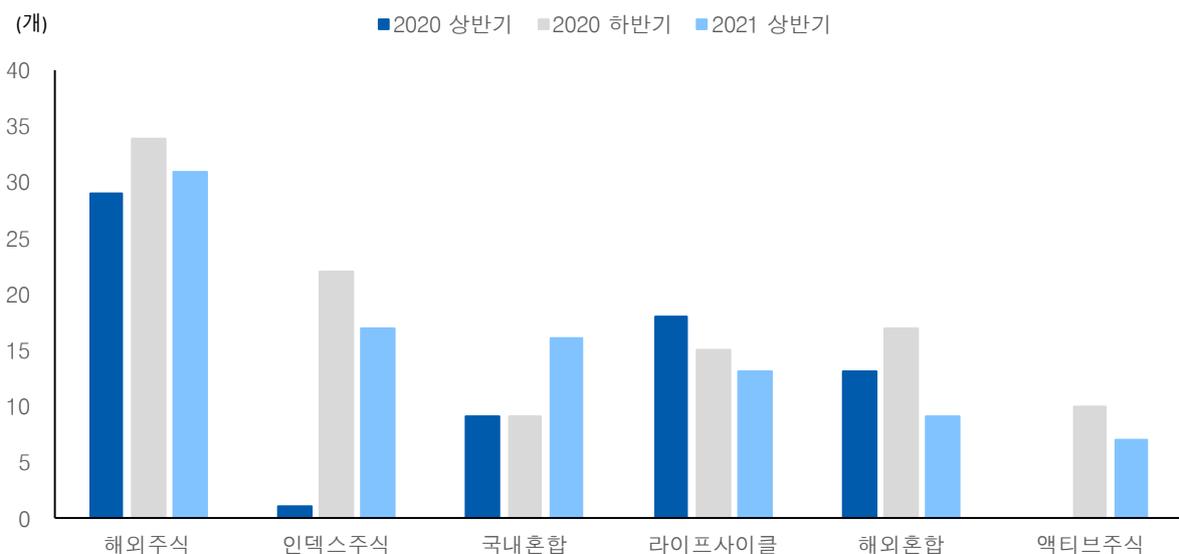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신규 펀드 중에서는 ELF가 대략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설정펀드 수는 작년 상반기 677개, 작년 하반기 780개, 올해 상반기 583개이다. ELF의 설정은 작년 상반기 677개, 작년 하반기 627개, 올해 상반기 458개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가 해외로 넓어지면서, 해외주식은 반기별로 30개 정도 새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해외주식의 투자 전략은 주로 ESG, 미국, 지속가능, 메타버스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이슈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ESG의 관련 분야에 투자하려는 투자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인덱스(ETF포함)유형에서도 ESG, 지속가능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가 주로 신규상장되었다. 5월에는 액티브ETF 8개가 상장되었는데, 투자 분야는 모빌리티·신재생·ESG 등이었다. 액티브펀드도 ESG·지속가능 관련한 펀드의 신규 출시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은퇴자산 운용의 대세가 된 TDF(라이프사이클)의 신규 펀드도 꾸준히 이어졌다. 라이프사이클펀드는 연초 이후 1.7조원의 설정액이 증가하였다.

[차트2] 반기별 신규펀드 설정 추이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해외주식 1조펀드는 4개

수년간 이어진 국내주식액티브펀드의 환매는 주식 시장의 역사적 신고점 돌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다.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국내액티브주식펀드 중에서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 펀드는 '신영밸류고배당'이 유일하다. 순자산규모 2위 펀드는 '마이다스책임투자'로 1위 펀드와는 순자산 격차가 크다.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주식인덱스펀드와 해외주식펀드는 1조 펀드가 훨씬 많다. 국내주식인덱스펀드 상위 9개의 순자산은 1조원을 넘는다(6월 29일 영업일 기준).

해외주식 직접투자 활성화는 해외주식 간접투자(펀드)도 활성화시켰다. 해외주식펀드 중에서 가장 운용규모가 큰 펀드는 3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이다. 이외에도 'AB미국그로스',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등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 'KB중국본토A주' 등의 순자산은 9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자산의 일부분을 국내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유리하다. 운용사의 리서치시스템과 투자 프로세스 등이 투자자산의 장기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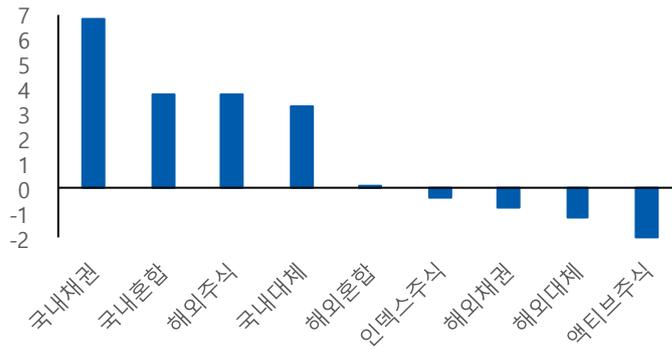
펀드명	평가유형	순자산	설정일	수익률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신영밸류고배당	액티브배당	14,121	2007-04-16	16.8	57.0	38.6	33.0	54.0
마이다스책임투자	액티브테마	6,551	2009-04-21	16.0	59.9	92.5	83.2	165.5
미래에셋코어테크	액티브섹터	6,430	2019-10-21	10.2	57.3			
신영마라톤	액티브일반	5,882	2005-11-30	11.7	55.8	42.5	34.7	70.2
하나 UBS 인 Best 연금	액티브일반	5,523	2001-02-02	11.1	53.2	47.6	28.2	50.0
삼성 KODEX200	코스피200	41,232	2002-10-14	13.1	58.2	64.7	56.6	102.5
미래에셋 TIGER200	코스피200	21,997	2008-04-03	13.2	58.5	65.1	57.2	103.7
삼성 KODEX 삼성그룹주	인덱스기타	18,864	2008-05-21	5.4	44.9	62.0	57.1	133.0
삼성 KODEX 레버리지	인덱스기타	14,482	2010-02-18	24.9	139.6	131.8	100.0	206.4
삼성 KODEX200TotalReturn	인덱스기타	14,375	2017-11-20	13.2	58.5	64.9	57.3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정보기술	30,802	2015-06-17	16.9	52.3	86.3	107.8	240.7
AB 미국그로스	복미	16,351	2010-03-30	13.7	34.1	61.5	80.4	167.4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	에너지	13,036	2017-10-26	14.6	75.7	115.8	81.1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글로벌	10,288	2013-02-20	9.0	18.9	19.3	35.4	57.6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	중국	9,690	2014-11-10	0.3	39.7	83.1	86.3	256.0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6월 29일 영업일

Key Chart

상반기 유형별 설정액 순증감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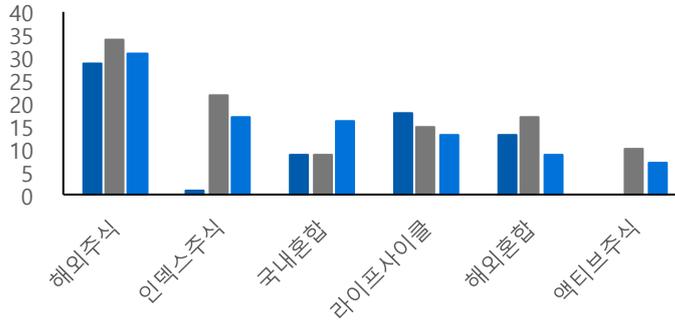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형별 신규 설정펀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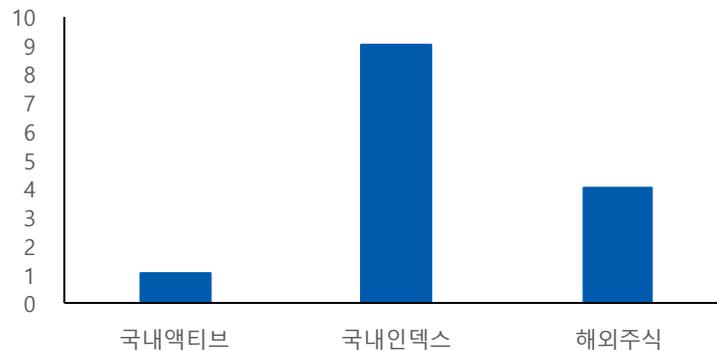
■ 2020 상반기 ■ 2020 하반기 ■ 2021 상반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형별 1조 펀드 개수

(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